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한국경제

이 강 국

1. 시대의 화두, 불평등

바야흐로 불평등이 시대의 화두가 되었다. 전 세계의 여러 국가들에서 최근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있어서 세계인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노동생산성의 상승에 비해 임금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서 노동자들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지 못했고, 최근 30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함께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왔다. 자본이득을 포함하여 상위 1퍼센트가 미국의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20세기 초 크게 높아져 대공황 직전인 1928년 24퍼센트까지 상승했고, 이후 세계대전의 충격과 전후의 고성장을 배경으로 약 10퍼센트까지 급락했다. 그러나 그 몫은 1980년대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다시 24퍼센트까지 높아졌다. 한편 대기업 최고경영진의 연봉은 1960년에는 일반 노동자 연봉의 약 20배였는데 90년대 후반 이후 급등하여 2012년에는 273배에 달했다. 미국의 상위 1퍼센트는 1993년 이후 20년 동안 전체 소득증가분의 약 68%를 차지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기인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도 소득증가분의 95%를 가져갔다. 이러한 현실은 미국만이 아니다.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 그리고 많은 개도국들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에 대해 분노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는 99%다’라고 외치는 월가점령시위가 나타나기도 했고, 이제 여러 학자들이 이러한 불평등의 악화가 금융위기의 한 배경이었다고 주장한다. 최근에는 IMF 등의 국제기구, 그리고 스탠다드앳퍼어스와 같은 월가의 신용평가기관들조차 심각한 불평등이 경제회복을 가로막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어온 현실과 그에 관한 시대적 우려를 반영하듯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피케티 신드롬'을 불러 일으켰다. 2013년 가을 프랑스에서 출판된 이 책은 2014년 봄 미국에서 출판된 이후 수십만 부가 판매되어 경제학 역사에 남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책은 한국에서도 2014년 9월 번역 출판되었고 피케티 교수도 당시 한국을 방한하여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 피케티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의 부와 소득의 불평등의 역사적 동학에 대한 방대한 스케일의 분석을 제시한다. 그는 쿠즈네츠 이후 오랫동안 주류경제학에서 간과되어 왔던 불평등 문제를 경제학의 전면에 다시 끌어들이고, 나아가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글로벌 자본세라는 대담한 주장을 제기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솔로우는 '피케티는 옳다'라고 서평의 제목을 붙였고, 크루그먼은 "피케티는 우리의 경제학 담론을 완전히 바꾸었고, 이제 더 이상 부와 불평등에 관해 이전처럼 이야기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격찬했다. 다음에서는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제시하는 논의와 그것을 둘러싼 논쟁, 그리고 한국에 주는 함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2. '21세기 자본'의 분석

피케티는 이 책에서 장기 데이터에 기초하여 자본주의에 내재한 불평등의 역사를 보여준다. 그와 동료 연구자들은 200여 년에 걸친 프랑스와 영국, 미국 등의 데이터를 수집했고 다른 국가들도 포함하여 세계상위소득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냈다. 이들은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기존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세와 상속세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상위 1퍼센트 혹은 10퍼센트 등의 계층의 소득과 부가 경제 전체의 소득과 부에서 차지하는 몫을 추정했다. 이러한 작업에 기초하여 그는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부와 소득의 불평등이 악화되는 경향을 발견하고, 특히 21세기에는 자본/소득 비율과 부와 소득의 집중이 19세기 세습자본주의 시대만큼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는 자본을 기업의 생산설비 뿐 아니라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모든 순자산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이 자본의 축적과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불평등의 동학을 설명한다. 이 책에서 그가 제시하는 이론적 틀은 간단하고 직관적인 신고전파 경제성장 모델이다. 그는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몫은 자

본-소득 비율에 자본수익률을 곱한 값이며, 자본-소득 비율은 장기적으로 정상상태에서는 저축률을 성장률로 나눈 값에 의해 결정된다는 자본주의의 기본법칙들을 제시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자본주의의 오랜 역사에 걸쳐 자본-소득 비율과 자본수익률을 추계하고 이와 관련하여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자본수익률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약 4~5%에 달했지만 경제성장률은 20세기 중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간에 그보다 낮아서 자본-소득 비율이 높아지고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결국 돈이 돈을 버는 속도가 노동이 돈을 버는 속도보다 빨라서 자본주의에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동학이 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의 추계는 자본-소득 비율이 프랑스와 미국 등 선진국에서 19세기와 20세기 초 매우 높았지만 대공황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쇼크 그리고 높은 성장률을 배경으로 크게 낮아졌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비율은 70년대부터 다시 높아졌고 성장률이 하락하고 세금인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21세기에는 19세기 수준만큼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최근 전체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의 비중이 더욱 높아져 왔고, 자본소득은 노동소득보다 훨씬 더 불평등하게 분배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인 소득의 불평등도 악화되었다. 그의 연구는 상위 1퍼센트 등이 전체 소득 그리고 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계하여 이러한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최상위 소득구간에 대해 아주 높은 누진소득세를 매기고 엄청난 규모의 부에 대해 전 세계적인 수준에서 자본세를 매기자는 것이 그의 정책제언이다. 이를 통해 자본수익률을 낮추고 경제를 더욱 역동적으로 만들어 불평등의 악화를 멈추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성장률이 높았던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 시기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에서 최고한계소득세율이 7~80%에 이를 정도로 높았고 80년대의 감세가 최상위소득의 비중이 높아지고 불평등이 심화된 주요한 배경이었다고 역설한다. 한편 피케티는 순자산 100만 유로가 넘는 자산 부분에 대해서는 1%, 500만 유로 초과분에 대해서는 2%의 소위 글로벌 자본세를 각국이 공조하여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세금은 조세회피처에 숨겨져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신고하도록 하여 전 세계의 금융시스템을 규제하는 노력의 일환으로도 커다란 의미를 지닐 것이다. 그는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민주주의에 기초한 시민들의 노력을 특별히 강조한다.

3. '21세기 자본'을 둘러싼 논쟁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출판된 후, 그의 논의를 둘러싸고 경제학계에서는 열띤 논쟁이 진행 중이다. 대부분 주류경제학자들의 비판은 피케티의 이론적 난점에 집중한다. 서머스도 지적하듯이 자본의 한계생산이 체감하여 자본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률이 빠르게 하락한다면 자본-소득 비율의 상승과 함께 자본소득분배율이 하락해야 한다. 그러나 피케티가 보여주듯 70년대 이후 자본-소득 비율과 자본소득분배율이 상승이 동시에 나타났는데, 이는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령리는 이에 대해 피케티의 연구는 감가상각을 제한 순생산을 사용한 것으로, 이를 통상적인 산출량을 사용하여 계산해 보면 그러한 결론에 이르기 위해 조대체탄력성이 비현실적으로 높아야 한다고 비판한다[Rognlie(2014)].⁽¹⁾ 그는 또한 주택부문과 그로부터의 소득을 제외하면 피케티의 결론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주택 가치를 다르게 측정하면 피케티의 결론이 달라진다는 비판과도 일맥상통한다. 한편 다른 학자들은 성장률이 하락하면 순저축률이 감소할 것이므로 순저축률이 일정할 것이라는 피케티의 가정을 문제 삼는다[Krusell and Smith(2014)]. 또한 피케티는 파레토 분배모델에 기초하여 $r > g$, 즉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다는 부등식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하지만, 이의 함의와 현실적인 적용에 관해서도 상당한 논쟁의 여지가 존재한다[Acemoglu and Robinson(2014); Jones(2014)].⁽²⁾

물론 피케티의 연구는 광범위한 자산을 자본으로 정의하고 장기적인 경향을 분석한 것이므로 이 비판들이 정곡을 찌른 것은 아니다. 피케티도 책에서 대체탄력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사실 그의 연구에 대체탄력성 논의를 바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

(1) 하지만 이는 언제나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은 기술혁신으로 인한 투자재의 상대적 가격하락과 관련이 크며, 이 경우 조대체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조대체탄력성보다 순대체탄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반론도 제시되고 있다[Karabarbounis and Neiman(2014)]. 순노동소득분배율과 순대체탄력성에 관한 실증연구들이 앞으로 더욱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2) 존스는 피케티의 주장에 대해 파레토 분배 모델에 기초하여 부의 불평등을 분석한 의의가 크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동시에 인구증가율 등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면 현실은 다를 수 있으며 피케티의 분석은 부분균형모델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한다. 변수들이 내생적이라면 이러한 비판은 피케티의 분석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가 있다[Steinbaum(2014)].⁽³⁾ 대부분의 실증연구들은 기업이나 산업 수준에서 짧은 기간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케티의 논의와 비교하기도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자본수익률 그리고 대체탄력성도 노자간의 역관계의 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음을 고려하면, 학계의 논란은 오히려 한계생산대로 분배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는 신고전파 경제학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마르크스주의를 비롯한 좌파 경제학자들도 피케티의 분석에 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전반적으로 이들도 피케티의 연구가 데이터에만 의존한다며, 자본주의의 법칙과 관련된 이론의 공백을 지적한다. 이들이 보기에 피케티의 자본 개념은 이윤을 낳는 사회적 관계로 자본을 파악한 마르크스의 눈으로 보면 물역사적이고 물질적이다. 또한 이들에 따르면 피케티는 분배만을 강조하여 이윤을 하락이라는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을 간과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위기경향이나 수요의 문제를 경시하고 있다[Roberts(2014)]. 한편, 주류경제학자들과 마찬가지로 피케티의 결론이 자산가격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비판도 제시된다[Galbraith(2014)]. 사실 최근 자본-소득 비율의 상승에 부동산 버블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면, 그로 인한 불평등의 심화를 자본주의에 내재한 동학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피케티의 자본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부문에 대한 더욱 상세한 분석이 발전될 필요가 있다.

물론 좌파의 비판은 전반적으로 피케티의 분석에 대한 내재적 비판은 아니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아무튼 피케티의 분석을 둘러싸고 앞으로 경제학계 전체에서 그리고 이론과 실증 모두에서 논쟁이 발전될 것이며, 그것은 경제학의 새로운 장을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피케티의 역사적 분석은 권력의 문제를 분배와 생산 모두에서 고려하여 신고전파 경제학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금융화를 배경으로 나타난 자본의 세력 강화와 자산가격의 상승이 불평등을 어떻게 심화시켰는지에 관한 분석이 더욱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케티 스스로도 필자와의 대담에서 신고전파 생산함수의 한계를 지적하고 상대가격 변화와 부동산을 포함한 자본의 다차원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케티를 미국에 알리는데 노력한 들롱도 신고전파 경제이론의 틀로는 피케티의 역사적 데이터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어떻게 보면 피케티의 논의는 신고전파의 방법론과 정치경제학적인 접근 사이에서 일종의 동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 '21세기 자본'과 한국경제

피케티가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한국에서도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1997년 외환금융위기 이후 경제의 구조변화와 함께 투자와 성장률은 낮아지고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특히 비정규직의 확대와 함께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2000년대 초반 이후 부동산시장의 버블과 함께 부의 집중도 높아졌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은 경제성장마저 해칠 수 있는 심각한 한국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실제로 지난 9월 피케티 교수가 방한하여 수많은 시민들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그의 연구를 둘러싸고 열띤 논란이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세금 데이터나 자본에 대한 추계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상당한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 여러 학자들이 피케티의 이론들에 기초하여 한국경제에 관한 분석을 발전시키고 있다. 정태인 박사나, 류동민 교수, 주상영 교수 등은 최근 발표된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 잠정데이터와 피케티의 방식을 적용하여 한국의 자본-소득 비율이 7을 넘어서 세계 최고수준이라 보고했다. 이들은 한국도 2000년대 이후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으며 따라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태인(2014); 주상영(2014)]. 한편 김낙년 교수 등은 피케티의 논의에 기초하여 한국의 상위 1퍼센트와 10퍼센트의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7년 이후 급속도로 상승하여 미국 다음으로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상위 1퍼센트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이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약 6~7퍼센트였지만 그 후 급속히 상승하여 2012년 현재 그 몫이 약 12퍼센트로 급등했고, 상위 10퍼센트의 몫은 무려 45퍼센트에 달했다[Kim and Kim(2014)]. 이러한 소득집중은 일본이나 프랑스보다 높고 미국이나 영국의 수준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다.⁽⁴⁾

(4) 한편 최근 이진순 교수는 제조업의 자기자본 이익률을 사용하여 피케티의 주장이 한국에서 적용된다고 주장하지만, 장하성 교수는 피케티의 논의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며 한국은 노동자의 낮은 임금과 노동소득의 불평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피케티의 방식은 각 자산의 수익률을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과 지대, 이자 등을 모두 포함한 자본소득을 민간순자산 총량으로 나누어 자본수익률을 계산하므로 과거의 수치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는 것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자본소득의 불평등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얼마 전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상위 1%가 배당소득의 약 72%, 이자소득의 약 45%를 차지하여 자본소득의 집중도가 매우 높았다[한겨레신문(2014)]. 또한 최상위 부자의 구성을 보면 미국의 경우 자수성가형 부자가 대부분인데 반해 한국은 재벌 2세 등 자산을 물려받은 상속형 부자가 약 80%를 차지하여 소득최상위층의 경우 피케티가 우려하는 '세습자본주의'가 한국에서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도 피케티가 지적한 자본주의의 부와 소득의 불평등의 동학이 작동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보다 더욱 끔찍한 불평등을 낳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자유경제원 등 여러 보수적 경제학자들은 피케티의 연구를 부정하고 누진소득세나 자본세의 강화는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피케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피케티의 연구가 한국에서도 불평등에 관한 생산적 논쟁을 불러일으킨다면 반가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와 논쟁의 발전과 함께 한국사회도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의 실정에 맞는 정책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소득과 부의 불평등은 매우 심각하지만 세금부담이 낮고 특히 사회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를 고려하면, 한국경제에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와 전반적인 세금인상에 기초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소득재분배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38%인 소득세 최고구간에 대한 최고한계소득세율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순자산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가난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빈곤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열악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빈곤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활한 구조조정과 실업자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을 강화하고 교육훈련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도입도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피케티도 지적하듯 공교육의 강화와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격차로 인한 빈부격차의 세습을 끊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이러한 노력이 소득의 정체로 불평등과 저성장의 악순환에 빠진 한국경제의 성장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

(5) 최근의 많은 경제학 실증연구들은 심각한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해친다고 강조한다. 심각한 불평등은 정치적 불안을 심화시키고 교육투자를 저해하여 장기적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이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함의는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노력과 변화가 핵심적이라는 것이다. 그가 강조하듯이 사회경제적 현실과 정치적 변화는 한데 얽혀 있으며, 불평등의 역사도 언제나 그렇듯 불확실하고 또 정치적이다. 피케티는 제도와 정치가 불평등에 중요한 요인이며 민주적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노력이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하게 내비친다. 이와 함께 그는 불평등의 분석을 위해 현실과 괴리된 경제학이 아니라 역사적인 정치경제학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심화되는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이론과 실천, 즉 경제학의 분석과 정치적 노력이 동시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케티의 메시지는 분명 우리 한국의 현실에도 커다란 울림을 주고 있다.

리츠메이칸대학 교수

주소: College of Economics, Ritsumeikan University

1-1-1, Noji Higashi, Kusatsu Shi, Shiga Ken, Japan.

전화: (81) 77-561-5041

팩스: (81) 77-561-3947

E-mail: leek@ec.ritsumei.ac.jp

참고문헌

정태인(2014):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리고 한국경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소 이슈진단.

주상영(2014): “한국경제의 피케티 비율과 주요쟁점,”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월례토론회 발표문.

한겨레신문. 2014년 10월 8일자.

Acemoglu, Daron and James A. Robinson(2014): “The Rise and Fall of General Laws of Capitalism,” Mimeograph.

Galbraith, John(2014): “Kapital for Twenty First Century?” *Dissent*. 61, 2, 77-82.

내수를 억압하여 단기적인 경제회복도 가로막을 수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가계소득 증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크게 부족한 현실이다.

- Piketty, Thoma(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이강국 감수, 이정우 해제, 장경덕 외 번역 『21세기 자본』, 파주, 글항아리, 2014.
- Rognlie, Matthew(2014): “A Note on Piketty and Diminishing Returns to Capital,” June, 15, Mimeograph.
- Jones, Charles(2014): “Pareto and Piketty: The Macroeconomics of Top Income and Wealth Inequality,” November, 24, Mimeograph.
- Karabarbounis, Loukas, and Brent Neiman(2014): “Capital Depreciation and Labor Shares around the World: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NBER Working Paper, No. **20606**.
- Kim, Nak Nyeon, and Jongil Kim(2014): “Top Incomes in Korea: 1933-2010: Evidence from Income Tax Statistics,” 낙성대경제연구소 워킹페이퍼, **2014-03**.
- Krusell, Per, and Anthony A. Smith(2014): “Is Piketty’s “Second Law of Capitalism” Fundamental?” October, 21, Mimeograph.
- Roberts, Michaeln(2014): “Unpicking Piketty,” *Weekly Worker*, Issue. **1013**, 6-7.
- Steinbaum(2014): “Piketty’s Theory of Inequality and Its Critics: A White Paper,” Washington Center for Equitable Growth.

